

이제 우리 역시 새로운 한해를 시작 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 함께 기도할 제목

- 1. 우리 가정이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2.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 3.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기쁨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 4.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휼과 인자로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설날 감사
가정예배

예 배 순 서

개회기도(묵도)-----	사 회 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말 씀 ----- 잠 16:16-19절-----	다 같 이
말씀의 선포 -----<영적 든든함을 가지려면>-----	사 회 자
찬 송 -----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개 회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에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명절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 명절에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태 표 기 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에 온 가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은혜 아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어, 평안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 주며 서로의 허물도 덮어 주는 평안한 가정을 세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화목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또, 온 가족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이 건강한 것만큼 속사람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 씀 섰 포

2014년 한해가 밝게 시작되었습니다. 원앙을 향해할 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위치, 목적지, 향해 코스입니다.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사용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위급한 순간에도 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날씨(강풍, 높은 파도, 앞이 안 보이는 시야)는 때때로 선원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배는 암초를 만나 파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파선을 면하고 든든하게 서 갈수 있을까요?

첫째,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16절)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합시다.

둘째, 정직하게 삽시다. (17절)

우리 옛말 가운데,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큰 길로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자는 누가 보아도 당당하고 떳떳한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가보아도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삽시다. (18~19절)

성 어거스틴은 사람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세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겸손한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10)

2014년 한 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복을 받는 축복된 가정되기를 바랍니다.